

환경의 날 특집

“작은 실천이 나와 자연을 살립니다”

5일 '환경의 날' “불교가 환경운동에 앞장서자”

불자서원 채택·공연·전시등 청정국토한마당

청정한마당 이모저모

환경노래극 공연 갈채

○... 조계사 대웅전에서 1일과 2일 양일간 공연된 녹색 예술단의 환경마당극 '금수강산 좋은씨고'는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환경노래극 연극이 어우러진 노래극을 펼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 조계사 백승사에서 봉행된 경복궁 환경모임의 발우공양식 시연(사진)은 많은



인문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특히 음식쓰레기가 전혀 안나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사리 손도 '환경보호'

○... 청년정보회의 생명나무 만들기 어린이들이 푸른 생명의 나무에 환경의지를 모아 글을 쓴 뒤 매달았는데 금새 풍성할 열매가 맺혔다.

○... 전통사찰유신 만들기 시연장에는 이차원어린이(개초초등학교 4학년)가 꼬마오리사로 시연을 펼쳐 화제. 길을가던 스님들과 보살님들은 시시하며 만드는법을 배워가기도 했다.

“국립공원개발 환경파괴”

○... 한국불교문화원이 국립공원 사찰환경에 대한 입장권에 녹색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의 설문조사에는 2백5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불자들은 국립공원의 개발은 자연환경이 파괴되므로 제한하고 입장료징수는 국립공원입장료만 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 수송공원에서 열린 환경인화사 사진회에는 4백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길게 줄을 늘어서서서도 즐거운 표정.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96년 불교환경제전인 '제2회 96 청정국토한마당'이 지난1일과 2일 조계사와 수송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다.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환경부 정종택장관 환경운동연합 최열사무총장 공해추방보급인모임회장 성타스님 불교환경교육원장 법현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법현스님을 비롯 청년 어린이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국토한마당 기념법회가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한 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을 구체적인 실천행과 함께 채택하고 생명살리기인 불교계의 환경보전의지를 다졌다. 이어 2일에는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 청소년·어린이관련행사 환경전시행사 교환 및 판매행사 캠페인행사 학술행사 등이 조계사와 수송공원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져 불교의 환경정신을 재다졌다.

환경수행 캠페인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환경운동은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수행 곧 환경운동이다”는 ‘환경수행’ 캠페인이 이 교계에 확산되고 있다. 지구보전의 위기 속에 이 운동의 길잡이로 최근 조

계종이 펴낸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에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속의 환경수행 ‘지금 나부터 바뀌십시오’와 사찰에서의 환경지침 ‘사찰중심으로 생명 살리기 운동’을 간추려 소개한다.

생활속의 환경지침

1. 물은 생명 아껴쓰고 잘 보 존하자
“물쓰듯 한다”는 이제 옛말. 천연세제 사용, 지하수오염 방지, 세탁물 재사용 등으로 맑은 물 지키고 절수하자.
2. 쓰레기, 검소한 생활로 해결
우리나라 연간 쓰레기 총량은 5천만톤. 음식량 조절, 일회용품 줄이기, 물건대물림, 종이 재활용, 사찰중심 재활용운동 적극 펼쳐자.
3. 바른 식생활로 자원절약

4.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자
생물 서식지 보호, 남획방지, 농약사용 줄이기, 외래어종 무분별 도입방지, 매장을 화장으로.
5. 녹색교통운동으로 환경보존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는 소형으로, 자전거 이용, 카풀제 동참, 자동차는 꼭 필요할 때만 타자.
6. 에너지 절약 생활화
냉난방 적당히, 조명기구 주기

적 청소 및 교체, 부분조명사용, 엘리베이터 탑승버튼 누르지 않기.

사찰서의 환경지침

1. 사찰을 환경적으로 바꾸기
대형불사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사찰 환경파괴를 막자.
2. 사찰에서 환경교육을
법문시간에 환경교육 상설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발우공양당 불가전통의 생활수행 집중 수련, 잘 보존된 곳과 파괴현장에서 의 체험교육
3. 우리사찰 알고 가꾸기

4. 사찰 환경위원회 결성
사찰의 환경교육 수요생 중심으로 녹색회등 구성
5. 국립공원 지키기
무분별한 개발, 계곡 오염, 나무훼손방지, 매립쓰레기 처리, 사찰입구 자가용 출입금지, 사찰유래·문화 소개
6. 생명살리기 병행법회
방생지역 특성조사, 먹이주기, 방생장소 깨끗하게, 낚시금지, 환경아카데미 개최
7. 일몰시장 생생운영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정기 일몰시장, 재활용품·유기농산물 상설매장, 전자제품 수리센터 운영
8. 사찰에서 환경캠페인
천천히 살기, 발우공양, 우유 팩 모으기, 자동차 인타기, 작게 살기 건전한 휴가 보내기, 청년회 휴가지역 녹색구할 등

환경운동 불자 원상식씨



“환경운동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죠.”

모범택시를 운전하며 카메라를 들고 환경감시와 환경실천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원상식불자(법통회 회장). 90년 불교방송 통신원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뒤 93년도 부터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 중이다.

매주 일요일이면 가까운 산을 돌며 쓰레기와 오물수거작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폐수 오물 폐유 감시운동도 펼치고, 평소 손님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생활이다.

인터뷰

94년 8월 원씨는 삼익건설 건 축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관리자에게 1차 환경계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화학폐기물을 소각하자 사진

“마음 맑아야 공해도 줄어요”

택시운전하며 카메라 들고 환경감시

으로 찍어 고발하려다 관리자 3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원상식씨에게 돌아온 것은 집으로 걸려오는 협박전화와 민사상 폭행죄에 연루되는 보복을 당했다. 관계당국에서 해준것

은 고작 벌금조치했다는 통지서 한장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카메라를 들고 폐수 불법쓰레기 매연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가 혼탁하기때문에 환경도 혼탁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원씨는 차내에서도 부

침 말습 태일 과 환경캠페인태 일을 승차한 사 람들에게 들려주 어 마음을 맑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교방송 통신원모 임에서 보내는 화환도 것발로 대 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그는 환경실천이 몸에 배인 ‘환경불 자’이다.

김원우 기자

시론

21세기 환경이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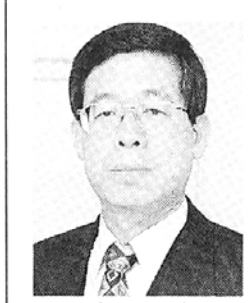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자연은 인간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없는 하루도 살 수 없다...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1992.6.5차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광안리 앞바다의 수질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의 조건인 개발·성장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풍부한 재화와 편리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와 인구증가 및 생산구조의 변화·과학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초래하고 자연의 소멸을 가져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회의론이 있어 왔다. 개발·성장과 환경의 보전은 인간의 이종적 목표로 서로 이러한 상충모순적이기도 한 2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고 있다.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또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환경이다. 보통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으로 나누지만 그 양자 모두 우리 인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환경침해는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환경오염 행위로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이에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김희욱 (서울대법학원 교수·부동산법)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는 환경을 이익을 얻는 객체만으로 여기지 말고, 환경이아말로 부처님의 진리, 사물 그 자체(dharma)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과 동등한 주체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환경보전이 21세기 경쟁력을 좌우한다. 더구나 지난 5월31일

은 제회 바다의 날이었다. 신라말 장보고 장군이 법화사상에 이념을 두고 창해진을 건설한 이념을 포함하여 바다의 날이 정해지고 해양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의 국토인 바다 경영의 틀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어류남획 바다오염 등 우려되는 해양환경의 파괴로부터 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발정책의 눈 높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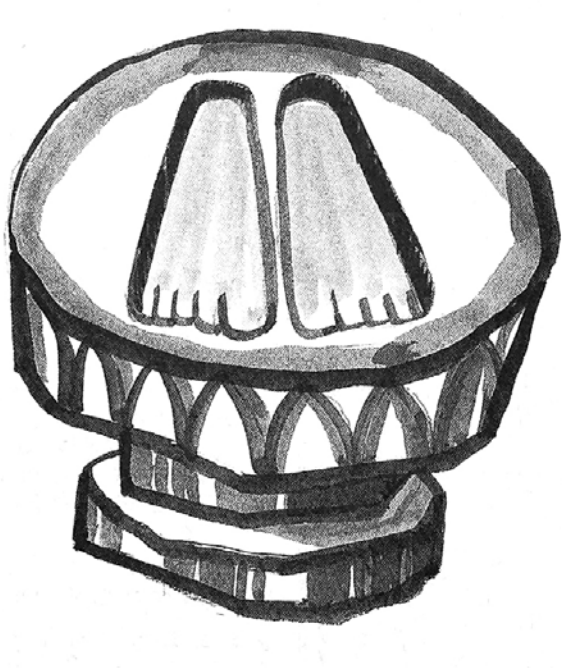
환경의 개선과 보전은 어느 누구, 어느 정부기관의 노력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구호성의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환경을 다스림과 같은 고상한 가치체제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철저한 의식을 바탕으로 개발·성장비용과 같이 환경비용도 필수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오히려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책의 눈을 높인 다음 높은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아야 환경문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은 우리 모두와 똑같은 주체적인 가치 덩어리이고, 더이상 성장·개발·성장의 필요와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역기능으로 환경훼손·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는 약 18년전 부산시점에 근무할 무렵에 광안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생활속의 불교 76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 벌어졌으니...

화두(話頭)란 무엇인가? 말의 첫머리이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다. 고로 마음이 말의 머리요, 생각의 머리이다. 마음(心)은 화두·염두이다. 그러므로 화두는 드는 게 아니라 보는 것(看話頭)이다. 간화선이란 바로 화두를 보는 수행, 즉 마음을 관하는, 비취 보는 수행이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한 마디 말 하기 이전의 자리를 관조(觀照)하는 것이다. 고로 화두는 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다. 어떻게 마음을 따로 들고 따로 주겠는가. 주고 받는 것은 공안(公案)일 뿐이다. 화두란 곧 마음이니 굳이 화두를 든다 함은 나의 일거일동을 누가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 없이 의심하고 관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따로 공안도 필요 없다. 누구인가? 누가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대

로 공안인데 거기에 무엇을 덧붙일 것인가? 덧붙인다면 굳더터기요, 굵어 부스럼일 뿐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 줄 아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헛소리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런 생물학적 결합이 전부라고 보아지지는 않는다. 고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수학을 풀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는 삶이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겠는가?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요, 근본이다. 만약 내가 없다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무엇이겠는가. 내가 있으니 일체의 사물도 실감이 되고 우주도 그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없는 게 된



다. 고로 나를 빼 놓고 무엇을 우주라고 하고 무엇을 진리라 하고 무엇을 법이라 하겠는가. 일체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곧 원의 중심이요 우주 만물의 중심점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이 본래로 원만공적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 하셨다. 따라서 네 성품의 참 모습을 알면 그대로 유아독존, 우주의 주인됨을 알리라 하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가. 내가 그대로 우주의 주인이요, 일체 만물이 나에게서 들고 난다 하니 그야말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가 아닌가. 나의 참모습, 참성품을 알고자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는 중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자동으로 응대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야 그냥 나인데 밝히긴 무얼 밝히느냐’하겠지만 그런 나를 가리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하신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나란 생사윤회에 잠긴 나가 아니라 태어난다 죽는 다를 뛰어 넘은 나를 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려면 내가 나를 보아야 한다. 육신의 내가 아닌 마음의 나를 관조해야 한다. 행위좌와, 하루 24시간 중에 끊임 없이 내 마음을 관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화두참선이다. 공안을 따로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말 머리, 생각 머리를 공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은 생활 속의 법이지 따로 쳐 놓은 울타리 속의 법이 아니다. 협찬: 불교조각원 이남형